

“KIA에 ML 노하우 접목 우승팀 만들겠다”



마무리 캠프 합류한 '위드마이어 수석코치'

프로야구 경력 38년
수비코치·분석 파트 전문가
감독·코치·스카우트 전천후 활동
삼성 스카우트로 국내서도 친숙

맷 감독과 애리조나·워싱턴서 호흡
코치진 개편 조만간 완료

KIA 타이거즈의 3년을 책임질 사령탑 체제가 구축됐다.

맷 윌리엄스(54) 감독을 보좌해 선수단을 이끌어 갈 마크 위드마이어(64) 수석코치가 22일 마무리캠프가 진행되는 합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 합류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훈련 전 마련된 선수단과 자리에서 “프로야구에서 3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감독, 코치, 스카우트로도 활동했다.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 시절에 수비코치로도 함께했다. 분석 파트에서도 전문가이다.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를 소개했다.

뉴욕양키스 출신인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는 윌리엄스 감독과 애리조나 시절 인연을 맺었으며, 워싱턴에서 수비코치로도 호흡을 맞췄다.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는 2016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스카우트 코디네이터로 활약하면서 KBO리그에도 친숙하다.

“내게 기회를 준 KIA 관계자와 윌리엄스 감독에게 감사하다. 같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한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는 “위드로 불려달라”며 선수들에게 첫인사를 했다.

이어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그는 “감독님과 스프링캠프를 함께 꾸린 적도 있고, 삼성에서 일을 해봤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왔던 것을 이곳의 문

화에 어울리도록 가져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수석코치로서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 감독이 때로 선수들을 힘들고 어렵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중간에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프로야구 중계도 지켜보는 등 KBO리그에 익숙하다. 윌리엄스 감독과 함께 했던 경험과 안목으로 ‘젊고 가능성 있는’ KIA를 ‘우승팀’으로 만드는 게 그의 목표이자 각오다.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는 “감독님과 2011년에 애리조나에서 처음 만났고 같은 내야수라 공통점이 많다”며 “좋은 선수는 주루, 타격, 힘, 수비, 송구 5를 갖춰야 한다. 정말 좋은 선수는 바로 눈에 보인다. 그런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만드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모든 팬, 관계자들이 우승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많은 분이 나를 환영해주셨다. 꼭 KIA가 우승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석코치의 합류로 코치진의 큰 틀을 짠 KIA는 조만간 코치진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KIA 이화원 대표이사는 “이번 주 내에 코치진을 조계현 단장, 윌리엄스 감독, 박흥식 피치스 감독과 잘 협의해서 조각을 할 예정이다”며 “현장에 선수단 운영의 전권이 있지만 구단이 큰 방향성에 맞춰서 팀을 꾸려나갈 것이다.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한다. 선수들이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팀 방향에 맞는 코치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변화의 시대”를 열 새 코치진에 대해 언급했다.

KIA는 왕조 재건을 위한 ‘쇄신’을 위해 외국인 감독 영입에 총력전을 벌였다. 그리고 경험 많고 의욕 넘치는 윌리엄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호랑이 군단’의 새 밑그림을 그렸다. 이어 대폭적이고 파격적인 코치진 구성을 통해 ‘우승’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합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감독-선수 중간다리 역할
모든이 격려하고 힘 줄 것
주루·타격·힘·수비·송구
좋은 선수 한 눈에 보여
능력 있는 선수 육성 도울 것”



맷 윌리엄스 감독

포구·스윙...기본기 최우선하는 ‘감독 선생님’

맷 감독 상견례 첫날부터 수비 시범 등 솔선수범...선수들 훈련 집중

맷 윌리엄스 감독의 열정이 KIA 타이거즈 선수들을 움직인다.

윌리엄스 감독의 최근 며칠은 말 그대로 강행군이다. 17일 새벽 한국에 입국한 뒤 오후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았고, 18일에는 합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캠프에 나선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첫날부터 수비 시범을 보였던 윌리엄스 감독은 빅리그와 다른 ‘많은 훈련량’에 만족감을 보이며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공을 잡는 자세를 취하고 방망이도 휘두르면서 ‘감독 선생님’이 되고 있다. 기본기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만큼 기본에 중점을 두고 선수들을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수들은 유쾌하게 말을 건네고 큰 제스처로 시선을 끄는 외국인 감독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의 열정에 녹아들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실력까지 겸비한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에게는 움직이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내야수 황윤호는 22일 타격 훈련 시간에 질문을

하며 배움의 열정을 보였다.

황윤호는 “변화구를 칠 때 공이 떨어지니까 올려 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감독님이 변화구도 다운스윙을 해서 스핀을 먹이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직구도 똑같이 쳐야 하나요 질문을 했다. 직구도 변화구처럼 똑같이 쳐야 한다고 하셨다. 수석코치님 이야기로 일치해서 혼동이 안 오는 것 같다. 똑같은 궤도,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적극적인 성격의 황윤호와 달리 아직 KIA 선수들은 적응 중이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윌리엄스 감독의 ‘하이 굿모닝’이라는 인사에 당황한다. 하지만 2차 드래프트

를 통해서 SK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내야수 최정용은 이런 인사가 어색하지는 않다. SK에서 할만 감독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정용은 “SK 있을 때 할만 감독님이 계셨다. 조용한 것보다는 항상 뭔가 열정적이어야 하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보고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됐었다”며 “이번에는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일부러 ‘오케이’도 외치고 답하고 있다. 외국인 감독님이 낯선 느낌은 아니다”고 웃었다.

윌리엄스 감독의 목소리와 움직임은 크지만 지도는 세밀하다.

최정용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신다”며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방법을 말씀해주신다. 예를 들어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고 말했다.

/합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손흥민 발롱도르·이강인 코파트로피 후보

손, 아시아 유일 후보 30인...이, 21세 이하 후보 10인에 올라

손흥민(토트넘)이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보이’ 이강인(발렌시아)도 21세 이하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후보자에 선정됐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노미네이트 됐다.

프랑스풋볼은 22일(한국시간) 올해의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손흥민은 올해 발롱도르 유력 수상 후보자인 베질 반 다이크(리버풀), 지난 2008년부터 발롱도르를 양분하고 있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케빈 더 브라운너(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적인 축구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발롱도르(Ballon d'or, 황금빛 공)는 프랑스의 축구 전문지인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올해의 유럽 남자 축구 선수상이다.

1956년에 제정된 이래 축구 부문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통하는 발롱도르는 축구 전문가와 축구팬 사이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선정하는 ‘FIFA 올해의 선수’보다 더 공신력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손흥민이 세 번째다. 2002년 벨기에 리그 안더레흐트에서 뛰던 설기현과 2005년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한 박지성이 각각 한 차례씩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후보는 50명으로 박지성과 설기현은 투표에서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활약한 나카타 히데토시(일본)가 세 차례나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는 지난 2007년 제14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에서 우승과 대회 MVP, 득점왕을

석권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표(1표)했다.

지난해 수상자인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폴란드에서 끝난 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이강인은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후보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발롱도르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마테오 레스트(유벤투스), 중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카이 하베르츠(레버쿠젠), 마테오 귀엔두지(아스날) 등 차세대 축구스타들과 함께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해 신설된 ‘코파트로피’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수상했다. 올해 킬리안 음바페는 발롱도르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강인